현불 논단

'禪藝一致' 종정예하 환영합니다

〈선예일치〉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3월 30일 종정 추대 법회 봉행
성파 대종사 15대 종정에 추대
理事 겸비, 조계종도 존경 받아

콩 재배 · 야생화 단지 조성 등
백장선사 선농일치 청규 계승해

선, 예술로 승화… 작품들 감동
불교문화지평 한 단계 상승하고
국민 교화 힘쓰는 종정 되시길

3월 30일 조계사에서 중봉성파 대종사를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으로 추대하는 대법회가 봉행된다. 모든 불자들과 한마음으로 종정 예하의 취임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종정은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宗統)을 승계하는 최고 지도자로서 권위를 갖는다. 불조의 혜명을 밝히고, 불도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고, 사회를 올바른 길로 향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불교가 나아갈 지혜의 등불을 밝혀줘야 한다.

성파 종정예하는 21세에 출가하여 일찍이 선지식으로부터 선정 · 계율 · 경전을 배우고 단련하였고, 종단의 행정 소임도 두루 거쳤다. 참선과 교학, 이(理)와 사(事)를 겸비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로서 종도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투철한 출가 수행자이다.

'심우도'에서 마지막 수행의 궁극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잣거리로 나가는 입전수수(入廛垂手)이다. 종정예하는 통도사 서운암에 중국 선종의 대웅(大雄), 백장 선사의 선농일치의 자립 불교정신을 계승하여 사찰에서 콩을 재배하여 된장을 담구고, 감나무와 차나무를 심는 생산불교를 실천했다. 4만 평을 가멸차게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여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매년 들꽃축제를 개최하여 대중을 사찰로 끌어 모았다.

21세기는 문화 예술의 시대이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나는 우리나라를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라고 문화국가론을 주장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전통문화와 사상을 지닌 우리 불교가 나라 발전을 위하여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문화 예술분야이며, 호국불교의 전통이다.

종정예하는 선(禪)수행을 예술로 승화시켜 전문적인 종교 예술가로도 이름을 알렸다. 예술은 창조가 생명이고, 종교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 으뜸이다. 예술은 인간 문화의 총아로써 인간에게 아름다움과 행복감을 준다. 현대불교가 나아갈 길은 전통을 지키며 새롭게 나아가는 창신(創新)이 대세이다.

1991년부터 20여 년 동안 남북통일을 염원하며 해인사 목판 팔만대장경을 도자기로 새롭게 16만도자대장경을 조성하였고, 장경각을 세워 봉안하였다. 나전 옻칠로 울주 천전리 암각화와 울산 태화강 반구대의 암각화를 장경각의 앞마당에 수중(水中)으로 재현해 놓았다.

절에 닥나무를 재배하여 세계 최대의 100m 한지를 제작해 절에 보관하였는데 세월이 지나면 국가문화재가 된다고 한다. 천연염색과 한지에 쪽물을 들여 감지(柑紙)를 만들어 고려 사경(寫經)의 전통을 되살렸고 옻칠을 재료로 고려불화를 재생시켰다.

종정예하는 38년 동안 성파시조문학상을 개최해 오고 있다. 시조가 우리민족의 전통문학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매년 개최한다고 한다. 문학 · 역사 · 철학, 인문학에서 문학이 으뜸이고, 문학 가운데에서도 시가 으뜸이다.

예술은 이름다움과 새로움을 창조하는 인간 문화의 꽃이다. 인간은 예술행위를 함으로써 영원으로 통하고 행복함을 느낀다. 전통문화와 예술적인 조예를 지닌 종정 예하를 모시게 된 것을 거듭 축하하고, 선정과 예술의 만남을 통해 우리 불교문화 예술의 지평을 한 단계 상승시키면서 국민을 교화하며 국가의 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나를 바꾸는 취침 전 15분

꽃들에게도 굿나잇 인사를 하고, 책상에게도 굿나잇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편안한 밤이 되라고 인사를 보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잠들기 전 10분간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 고 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버린 후에도, 잠들기 전에 잡아놓은 방향으로 마음이 진행되고 있다니 참으로 놀랍지요. 이 원리를 보아 근본적으로 마음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란 것이 눈을 떴을 때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의 마음은 전체 마음의 활동 면에서 본다면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마음의 활동면에서 보면 5%에 해당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인간의 전체 마음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일단 운전을 시켜 놓으면 어디까지나 무작정 같은 방향으로 창조활동을 계속해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습관의 마음' 이라고 부릅니다.

'습관의 마음' 으로 가는 것이 전체의 5%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이 습관의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 역할을 합니다. 깨어있는 마음이 잠들기 전에 자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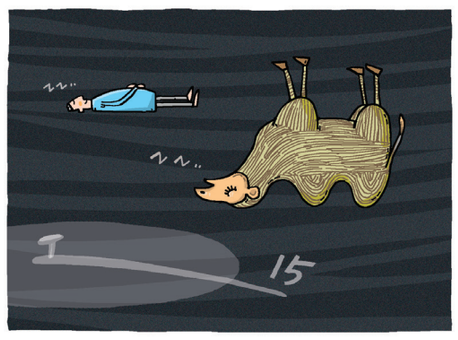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이라는 자동차가 달리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어야 합니다. 수면 중에도 계속되고 있는 마음의 창조활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밝은 방향으로,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소아과의사의 보고에 의하면 어린아이는 밤중에 성장한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에 마음의 자세를 지배함으로서 건강이나 성격을 개선 할 수가 있습니다. 낮에 있었던 짜증스러운 마음이나 여러 가지 불만과 화나는 일을 잠자리까지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등에 짐을 진채 잠자는 낙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낮에 있었던 좋지 않은 기억들은 평화로운 잠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방해하며 성격을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낙타가 아니니까 짐을 진채 쉬게 해서는 안됩니다.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 상태에서 잠자리에 든다면 지금까지 외부를 향해 파괴적으로 작용하고 있던 마음이 반대로 내부를 향해서만 파괴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운전수가 잠들어 있는 자동차처럼 마음은 방향을 바꾸지 않고 무조건 자신을 향해 돌진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잠들기 15분전에 마음을 파괴적인 방향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화, 갈망, 시기, 질투, 분노 같은 부정적인 채널에서 평화, 기쁨, 즐거움, 연민, 자비와 같은 긍정적인 채널로 바꾸어야 합니다. 취침 전에 합장하고 10분 정도 자신이 작성한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자기 전에 긍정적인 채널로 돌려놓는다면 어제의 나는 없고, 오늘 새로운 '나' 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연대 · 나눔으로 '종전' 이끌자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회적 참사나 부당한 권력의 피해와 고통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손을 내밀어온 한국 불교계가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국민을 향한 지지와 연대에 앞장서고 있다.

본지는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조계종, 상월결사, 아름다운동행과 공동으로 난민 구호를 위한 긴급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 전역에서 러시아의 침공과 푸틴 대통령을 규탄하는 반전 시위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에서 인도적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번 기금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불자들의 한마음 한뜻이 모인 것이기에 그 어느때 보다도 소중하다.

앞서 불교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중단을 촉구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조계종은 3월 2일 입장문을 내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돼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상월결사는 3월 23일,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순례' 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9.6km를 행선한 사부대중 500여 명은 "함께하는 인류애로 피와 눈물로 얼룩진 우크라이나의 아픔을 위로 하겠다"고 발원했다.

모금 캠페인은 전쟁으로 삶이 파괴돼 버린 우크라이나에 희망을 전하겠다는 불교계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캠페인은 8월까지 진행되며 기금은 난민들을 위한 생필품과 의류, 의약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저 멀리 아시아의 한 국가, 불교계에서 전하는 지지와 연대의 발걸음이 한줄기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

불자들의 따뜻한 연대와 나눔 정신이 종전을 이끌 수 있다.

일제 역사 지우는 '미남불' 환지본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으로 청와대 이전을 추진하며, 기존 청와대 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사를 다룬 한국정치박물관부터 시민공원 등으로의 탈바꿈이 예상된다.

이러한 청와대에는 불교계의 이른바 아픈 손가락이 하나 남아있다. 바로 청와대 '미남불' 로 일컫어지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이다. 뛰어난 조형미로 '미남' 불로 회자되는 이 불상은 본래 경주에 있었으나 1913년 경주금융조합 이사였던 오히라가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선총독에게 바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1939년 경복궁에 새로운 총독관저(현 청와대)가 지어지면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됐다.

미남불이 현재 청와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일제에 의한 불교문화재 수탈의 증거이며, 청와대가 일본 총독관저 잔재인 것을 의미한다.

2018년 〈신라사적고〉가 발견되며 경주 이거사지가 이 미남불의 본래자리인 것까지 확인됐다. 남은 것은 환지본처.

문화재는 제 자리에 위치해 있을 때 본연의 가치를 되찾는다. 문화재청에서도 이거사지 발굴 및 부지 매입 등에 박차를 가하는 지금이 미남불 환지본처의 시기가 아닐까.

청와대 용산 이전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1948년 일제의 조선총독 관저에 그대로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며 경무대로 이름 붙여 사용된 역사를 지우는 길인 것이다. 청와대에 위치해 그동안 경주 이거사지로 돌아오지 못한 미남불의 환지본처는 일제 역사를 지우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